카다피 친위대, 트리폴리 시위군중 무차별 총격

반군 수도입성 임박…양측 전면전 발생 가능성

안보리, 무기 금수·자산동결·'反인도 범죄' ICC회부

리비아 동부와 서부지역 상당수를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가운데 수도 트리폴리에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친위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개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정부의 시위 강경진압에 항의하며 공직에서 사퇴하는 해외 외교관들이 잇따르고 있고 리비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트리폴리 첫 대규모 시위 = 알-자지라 TV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대 수천명은 이슬람권 휴일인 금요일을 맞아 25일 이슬람사원에서 예배를 마친 뒤 거리로 나와 반 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예배를 마치고 시내 중심지인 그린광장으로 행진하려 했지만 카다피 친위대는 이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이날 시위는 리비아 시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수도 트리폴리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것이다.

트리폴리 인근 자위야의 정유시설 단지에서는 26일(현지시각) 새벽 반정부 시위대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의 친위병력 간에 치열한 교전이 발생,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비아 동부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장악한 반군 세력은 카다피의 근거지로 무차별적인 민간인 살상이 자행되고 있는 수도 트리폴리로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 포스트(WP)가 26일 보도했다.

트리폴리로 반군 병력이 진입하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친정부군과 반군 병력 사이의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알 이슬람이 이날 반정부 시위에 대한 외국의 개입과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정부 세력에 휴전을 촉구한데 이어 무스타파 압델 잘릴 전 법무장관은 "벵가지에서 과도정부를 구성했으며 3개월 뒤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면서 과도정부는 선거 때까지만 존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다피는 25일(현지시각) 수도 트리폴리의 그린광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지지자들에게 리비아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고 국영TV가 보도했다.

◇안보리 리비아 제제결의 만장일치 채택=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와 그 자녀 및 핵심 측근에 대한 여행 금지 및 해외자산 동결 등을 골자로 한 강경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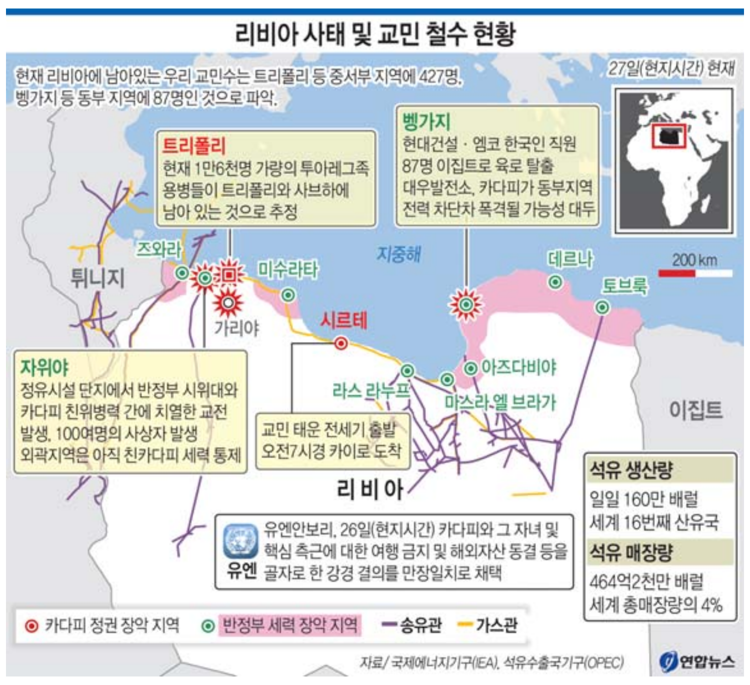
특히 안보리는 카다피 정권의 무차별적인 진압으로 1000여명이 숨진 최근 리비아 상황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결의에 포함시켰다.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 1970은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리비아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카다피의 아들과 딸 이번 유혈진압과정에 개입한 군과 정보기관 고위 관리 등 16명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와 카다피 본인과 자녀 등 6명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에게 무기와 화력, 군용 차량, 장비, 치안 장비 등 군수품 일체와 그 부속품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정부도 리비아에서 잔류 미국인들의 철수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리비아 현지 대사관을 폐쇄하고 리비아 정권 고위층의 개인금융계좌에 대한 감시에 착수하는 등 리비아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연합뉴스



中 '2차 재스민 집회' 사실상 무산

공안 살수차 동원 사전봉쇄

중국판 '재스민 혁명'을 위해 인터넷상에 예고됐던 27일 제2차 집회는 중국 공안당국의 원천봉쇄로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의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중국어 인터넷사이트인 보쉰(www.box-un.com)에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각 오후 3시) 베이징,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전역의 27개 도시(홍콩 포함)에서 두 번째 집회를 열자고 통보됐으나 집회 예상 개최지를 중국 공안이 물샐 틈 없이 차단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집회는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20일의 1차 집회 예정지와 인접한 왕푸징 거리의 KFC 매장 앞이 집회 예정지로 예고됐으며, 상하이시의 경우 인민광장 평화극장 앞이 집회 예정지로 지목됐다.

그러나 베이징 왕푸징 거리는 이날 오전부터 정·사복 차림의 공안 병력이 촘촘하게 깔려 집회 개최를 차단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특히 오후 2시가 다가오면서 검문검색을 강화했고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포함한 서방 취재진이 KFC 매장 등으로 몰리자 공안이 다가와 귀가를 종용했다. 중국 공안은 아울러 카메라 등으로 거리 상황을 스케치하던 취재진 수십명을 연행해 조사를 거친 후 풀어주기도 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살수차와 대형 트럭 등도 왕푸징 거리에 대거 배치한 모습도 목격됐다.

아울러 중국 공안당국은 텅뱌오, 장톈융, 쉬즈융 변호사를 비롯한 반체제 인사 및 인권운동가 최소 70~80명에 대해 가택연금 또는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대화에서 "보다 공정한 소득 재분배와 인플레이션 억제,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문제 해소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민주화 시위에 영향을 받은 '시위성 집회'로 민심이반 현상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연합뉴스

北 '선군청년총동원대회'

강성대국 건설 역할 강조

북한이 26일 평양에서 '선군청년총동원대회'를 열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김정은 후계체제 다지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조직에 외부의 민주화 바람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축하문을 통해 "모든 청년들은 당의 강성대국 건설구상을 관철해 나가는 열혈 투사가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은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지켜 나가는데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교민 귀국·탈출 이어져

"대사관 폐쇄 논의 안됐다"

유혈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특별 전세기 KE 9928편으로 귀국한 교민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비아 중부 시르테 지역에서 우리 교민을 태운 이집트 항공 전세기가 27일 오전 6시55분(이하 현지시각·한국시간 오후 1시55분)께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다.

외교통상부는 전세기가 이날 오전 4시15분께 시르테 공항을 출발, 약 2시간40분 만에 카이로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근로자 60명과 제3국 국적의 노동자 208명 등 모두 268명이 탑승했으며, 탑승자들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이집트, 두바이 등에 머물면서 리비아 복귀 시점을 살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6일에는 동부 지역 벵가지에서 우리 교민 30여명이 터키군 수송선을 이용해 리비아를 빠져나왔다. 이 수송선은 28일 오전 8시께 터키 남부 마르마라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리비아에 남아있는 교민수는 트리폴리 등 중서부 지역에 427명, 벵가지 등 동부 지역에 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5일 하루 동안 리비아를 탈출한 교민이 6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이집트와 튀니지 등 인근국가로 이동하거나 이탈리아 로마를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잔류 교민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철수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철수를 희망하는 인원이 많아질 경우 육로와 해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철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과 프랑스 등 각국이 리비아 대사관을 잇따라 폐쇄하는 것과 관련해 "현지에 교민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우리 대사관의 폐쇄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리비아 주재 교민 철수를 위해 오만 해역에서 리비아로 향하는 청해부대 최영함(4천500t급)은 다음달 3일께 리비아 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최영함이 내달 3일 리비아 동부 벵가지항에 도착한 뒤 우리 국민을 탑승시키고 4일 그리스 크레타섬으로 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리비아서 목격된 황우석 박사… 왜?

"생명공학기술 협의"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교수)가 반정부시위가 한창인 리비아에서 목격됐다.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서 한국 정부가 보낸 전세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한국인 탈출 행렬 속에서다.

26일 황 박사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이달 10일께 리비아 국가연구기관의 초청을 받아 약 2주간의 일정으로 리비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동물복제와 줄기세포연구 등 생명공학기술에 관심을 표명해 온 리비아의 한 국책연구기관이 오래전부터 방문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한 지인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北 "심리전 발원지 조준 격파"

키 리졸브 앞두고 통고…軍 경계태세 강화

군 당국은 27일 북측이 남측의 대북 심리전 발원지(원점)를 조준 격파사격하겠다고 통고함에 따라 대북경계 및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와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수석대표)은 이날 오전 8시 남측 수석대표에게 대북 심리전 행위를 비난하고 북측의 대응원칙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북측은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원점)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측이 전통문을 발송한 의도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28일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연습 기간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전술의 일환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은 MDL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으며 상향된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 교육일시 및 장소
- 2011.03.03.(목) ~ 2011.03.08.(화) / (총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자격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학경력자포함),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 이명규 교수 062-670-2421
•부 원 장 강동욱 변호사 062-233-3119
•사무국장 김병철 062-233-3119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공인받음

자격등급별	개 강 일 시 (과정별)	수업기간 (24주)
1. 한자지도사 3급	• 토요일오전반:2011.3.19(토)09:30 • 월·목 오후반:2011.3.21(월)14:00 • 월·목 야간반:2011.3.21(월)18:20	2011.8.27 (96시간) 2011.4.28 (96시간) 2011.4.28 (96시간)
2. 한문지도사 2급	• 월·목 오전반:2011.2.21(월)09:30 ※ 2011.3.3(목)까지 추가모집함	2011.4.11 (96시간)
3. 한문지도사 1급	• 금요일 오전반:2011.3.18(금)09:30	2011.8.26 (96시간)
4. 한문지도사 특급(훈장)	• 토요일 오후반:2011.3.26 수료 ※ 2011.4.2(토) 개강 예정	2011.9.10(금) (96시간)
※ 과정별 지도교수 네분이 명강의 합니다.		

◉ 모집기간 : 2011. 02. 18 ~2011. 03.21
◉ 모집인원 : 각 과정별 25명
◉ 수 강 료 : ₩350,000 (농협 : 175375-56-065137)
◉ 자격의 활용
■방과후 학교 강사 ■학원설립 및 강사 ■각종 사회교육기관 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자격취득
국·한문 혼용급수 (고급~중급) 자격취득
◉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366-9666, 367-8666, 원장 011-607-6292
▶접수처 : 광주·서구·농성동 633-28 (건강관리협회 부근)

국가공인자격관리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연수원

대상
2011년2월4일 SBS 주관
전국동안대회 대상
2011년2월24일 SBS 좋은아침 방송
이계남 신비 건강 재활원

심근경색 · 파킨슨병
잠수병 · 혈관질환 · 허약체질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요법만으로
본인도 놀랄만큼 단 시일내 치유됨!!
062)951-5511 · 016-9578-7777